

일본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언제인가 한 문인은 지도상에 위치한 일본을 보면 군화발처럼 생긴 조선의 발걸음에 채워 대양 한가운데 휘뿌려진 4개의 섬 조각들을 련상케 한다고 지적학적묘사를 한다.

일본의 재빠른 표적변화에 허를 차기에 앞서 얼마나 가공할 처지에 빠졌으며 저러라 하는 쓸쓸한 생각이 먼저 든다.

실지로 지금 조미관계의 긴박한 움직임에 불안에 휩싸인 아베는 전황에 매달려 백악관에 《그 어느때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요사를 떨어대고도 안심치 않아 워싱턴에 날아갈 일정을 발표하고 그 차비를 서두르고있다.

우리로 변한다는 카멜레온도 무색케 할 변덕이다.

일본의 재빠른 표적변화에 허를 차기에 앞서 얼마나 가공할 처지에 빠졌으며 저러라 하는 쓸쓸한 생각이 먼저 든다.

실지로 지금 조미관계의 긴박한 움직임에 불안에 휩싸인 아베는 전황에 매달려 백악관에 《그 어느때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요사를 떨어대고도 안심치 않아 워싱턴에 날아갈 일정을 발표하고 그 차비를 서두르고있다.

일본의 재빠른 표적변화에 허를 차기에 앞서 얼마나 가공할 처지에 빠졌으며 저러라 하는 쓸쓸한 생각이 먼저 든다.

실지로 지금 조미관계의 긴박한 움직임에 불안에 휩싸인 아베는 전황에 매달려 백악관에 《그 어느때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요사를 떨어대고도 안심치 않아 워싱턴에 날아갈 일정을 발표하고 그 차비를 서두르고있다.

우리로 변한다는 카멜레온도 무색케 할 변덕이다.

일본의 재빠른 표적변화에 허를 차기에 앞서 얼마나 가공할 처지에 빠졌으며 저러라 하는 쓸쓸한 생각이 먼저 든다.

실지로 지금 조미관계의 긴박한 움직임에 불안에 휩싸인 아베는 전황에 매달려 백악관에 《그 어느때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요사를 떨어대고도 안심치 않아 워싱턴에 날아갈 일정을 발표하고 그 차비를 서두르고있다.

일본의 재빠른 표적변화에 허를 차기에 앞서 얼마나 가공할 처지에 빠졌으며 저러라 하는 쓸쓸한 생각이 먼저 든다.

실지로 지금 조미관계의 긴박한 움직임에 불안에 휩싸인 아베는 전황에 매달려 백악관에 《그 어느때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요사를 떨어대고도 안심치 않아 워싱턴에 날아갈 일정을 발표하고 그 차비를 서두르고있다.

우리로 변한다는 카멜레온도 무색케 할 변덕이다.

일본의 재빠른 표적변화에 허를 차기에 앞서 얼마나 가공할 처지에 빠졌으며 저러라 하는 쓸쓸한 생각이 먼저 든다.

실지로 지금 조미관계의 긴박한 움직임에 불안에 휩싸인 아베는 전황에 매달려 백악관에 《그 어느때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요사를 떨어대고도 안심치 않아 워싱턴에 날아갈 일정을 발표하고 그 차비를 서두르고있다.

일본의 재빠른 표적변화에 허를 차기에 앞서 얼마나 가공할 처지에 빠졌으며 저러라 하는 쓸쓸한 생각이 먼저 든다.

실지로 지금 조미관계의 긴박한 움직임에 불안에 휩싸인 아베는 전황에 매달려 백악관에 《그 어느때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요사를 떨어대고도 안심치 않아 워싱턴에 날아갈 일정을 발표하고 그 차비를 서두르고있다.

우리로 변한다는 카멜레온도 무색케 할 변덕이다.

일본의 재빠른 표적변화에 허를 차기에 앞서 얼마나 가공할 처지에 빠졌으며 저러라 하는 쓸쓸한 생각이 먼저 든다.

실지로 지금 조미관계의 긴박한 움직임에 불안에 휩싸인 아베는 전황에 매달려 백악관에 《그 어느때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요사를 떨어대고도 안심치 않아 워싱턴에 날아갈 일정을 발표하고 그 차비를 서두르고있다.

일본의 재빠른 표적변화에 허를 차기에 앞서 얼마나 가공할 처지에 빠졌으며 저러라 하는 쓸쓸한 생각이 먼저 든다.

실지로 지금 조미관계의 긴박한 움직임에 불안에 휩싸인 아베는 전황에 매달려 백악관에 《그 어느때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요사를 떨어대고도 안심치 않아 워싱턴에 날아갈 일정을 발표하고 그 차비를 서두르고있다.

우리로 변한다는 카멜레온도 무색케 할 변덕이다.

일본의 재빠른 표적변화에 허를 차기에 앞서 얼마나 가공할 처지에 빠졌으며 저러라 하는 쓸쓸한 생각이 먼저 든다.

실지로 지금 조미관계의 긴박한 움직임에 불안에 휩싸인 아베는 전황에 매달려 백악관에 《그 어느때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요사를 떨어대고도 안심치 않아 워싱턴에 날아갈 일정을 발표하고 그 차비를 서두르고있다.

일본의 재빠른 표적변화에 허를 차기에 앞서 얼마나 가공할 처지에 빠졌으며 저러라 하는 쓸쓸한 생각이 먼저 든다.

실지로 지금 조미관계의 긴박한 움직임에 불안에 휩싸인 아베는 전황에 매달려 백악관에 《그 어느때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요사를 떨어대고도 안심치 않아 워싱턴에 날아갈 일정을 발표하고 그 차비를 서두르고있다.

우리로 변한다는 카멜레온도 무색케 할 변덕이다.

일본의 재빠른 표적변화에 허를 차기에 앞서 얼마나 가공할 처지에 빠졌으며 저러라 하는 쓸쓸한 생각이 먼저 든다.

실지로 지금 조미관계의 긴박한 움직임에 불안에 휩싸인 아베는 전황에 매달려 백악관에 《그 어느때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요사를 떨어대고도 안심치 않아 워싱턴에 날아갈 일정을 발표하고 그 차비를 서두르고있다.

일본의 재빠른 표적변화에 허를 차기에 앞서 얼마나 가공할 처지에 빠졌으며 저러라 하는 쓸쓸한 생각이 먼저 든다.

실지로 지금 조미관계의 긴박한 움직임에 불안에 휩싸인 아베는 전황에 매달려 백악관에 《그 어느때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요사를 떨어대고도 안심치 않아 워싱턴에 날아갈 일정을 발표하고 그 차비를 서두르고있다.

우리로 변한다는 카멜레온도 무색케 할 변덕이다.

6월에 세계진혁사의 교훈

남조선력사의 갈피에는 《6.29특별선언》이 기록되어 있다. 남조선력사에서 이명명 《속이구선언》으로 불리우는 선언이다.

6월11일항쟁의 소중한 열매라고 해야 할 《6.29특별선언》이 왜 《속이구선언》이 되었는가.

1987년 6월 10일 남조선의 수십만명의 각계층 인민들은 《간선제》에 의한 《대통령》선거로 군사독재 《정권》을 연장해버리는 전두환파씨도당을 반대하여 항쟁에 열거해나섰다. 그로부터 20일 동안이나 남조선인민들은 도처에서 《독재타도》, 《민주헌법쟁취》, 《미제축출》 등의 구호를 들고 집회, 시위를 비롯한 각종 투쟁을 벌여왔다. 결국 군사파씨도당은 인민들앞에 무릎을 꿇고 《대통령직선제 도입》을 할 자로 하는 《6.29특별선언》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6월11일항쟁의 소

중한 열매는 음모적방법으로 《정권》을 찬탈한 로태우군사파씨도당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말았다.

력사의 교훈은 무엇인가. 파씨무리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벌여나가 지 않는다면 피로써 정취한 민주주의 성과물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다.

6월에는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 새겨진 또 하나의 사건도 있다.

2002년 6월 13일, 이날 남조선에서 신호순, 심미선 두녀중학생이 미군장갑차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던 것이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빛어낸 비극적참상이었다. 이를 계기로 남조선인민들은 두녀중학생살인사건의 진상규명과 범죄자처벌을 요구하는 대중적인 조발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때도 지금에도 범죄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있다.

최악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있다.

세계이 흐르고 시대도 바뀌었지만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은 계속되고있고 친미사대와 파씨독재에 명줄을 건 사악한 무리들의 전횡도 계속되고있다. 오래전대 배장되었어야 할 전두환, 로태우역도와 군사파씨도당의 후예인 《자유한국당》 페거리들이 아직도 버리를 쳐두고 살판치고있는 것은 6월11일항쟁용사들에 대한 모독이며 민심에 대한 우롱이 아닐수 없다. 나아가 린 너학생들을 무한계도로 무참히 짓밟아죽이고도 사뻏게 하나 재질권을 실현해



두녀중학생살해사건을 계기로 분노의 초불을 들고 거리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

지도 남조선에서 주인공행세를 하며 살인, 강간, 강탈 등 각종 범죄를 수없이 저지르고있다.

지금 초불항쟁으로 박근혜 보수 《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린 남조선인민들이 광범한 보수적패정산투쟁을 벌리고있지만 이미 적폐세력으로 민심의 락인을 받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발악 또한 심상치 않다. 남조선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을 가로막는 압적존재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어떻게 하나 재질권을 실현해

과거의 파씨압축시대를 되살리려고 발광하고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해 일떠선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낼수 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6월11일항쟁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반미자주화, 사회의 민주화,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에서 사대역적무리들, 파씨독재세력들을 끌어 버리려는 인민들의 투쟁열기로 6월의 대지는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본사기자 김연옥

력사적인 판문점 선언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넘긴다는 은 거리의 일지한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함으로써 폭어진 민족의 열매를 맺고 공동영광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데서 전환적의 의를 가지는 새로운 리정표이다.

하기에 오랜 세월 대결하고 반복해는 북과 남 사이에 마련된 화해와 관계개선의 흐름에 계속 도전해나서고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페거리들은 남조선정치권이 합의하였던 《국회》에서의 판문점선언지킴이의 안채택을 《결의안》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면 미가 없다.》고 췌쳐대면서 끝끝내 파탄시켰다. 그런가 하면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있는 북남, 조미접촉들에 대해서도 《문제인정권은 북핵도 평화통일하면 우리것이라는 환상을 짓어먼다.》, 《미북회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니 뽀니 하면서 현정세흐름을 가로막아보려고 악을 써대고있다.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홍준표페거리들이 《판문점선언지킴이》 아니라 북핵폐기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망발까지 거머잡고있다.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10년간이나 북남관계발전을 조국통일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범죄만으로도 이미 이 땅에서 살아 숨릴 자격을 상실하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보수페거리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누구든 민족의 근분리의를 외면하고 동족대결에 매달린다면 준엄한 천추를 면치 못할게 된다.는것을 박근혜타락과 보수 《정권》과멸이 잘 말해주고있다.

이제 북남관계개선은 막을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다. 남조선의 반동보수패당이 민족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할수록 력사의 흐름이 무너져나갈 것이니 이대 개입에 도토리신세

최근 남조선에서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 대법원장이였던 량승태의 사법행정권 탐용행위가 드러나 각계의 비난과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알려진대 의하면 전 대법원장이었던 량승태는 제임시절 진보적단체들과 인사들의 사건관계를 보수적패당과 결탁하여 《거재》, 《홍정》하면서 그들의 구미에 맞게 조작적리하고 일부 관사들에 대한 《이탈대상명부》를 작성하는 등 엄청난 반민적범죄행위를 일삼았다고 한다.

이것은 지난 시기 보수집권세력이 사법부를 《정권》의 시기로, 보수 《정권》유지의 《별동대》로 색막어온 또 하나의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행위이다.

법이 만민에게 공평해야 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사법부가 독재권력의 도구로 리용되어 온 것이다.

폭로된 전 대법원장 량승태의 사법행정권탐용행위는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 후배를 번여오 정의를 무참히 짓밟아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낸 수많은 유명무명의 재판결과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되었는가를 잘 설명 해주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에서는 지난 보수집권시기에 벌어진 사법행정권탐용행위의 추악한 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각계층의 분노의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의 여당

파양당들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포악에 버금가는 사법포악단》,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사법부》, 《청와대 비위와 구미에 맞게 판결을 일삼았다니 누가 막힌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조사》는 물론 《투검》을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낼것을 촉구하였다.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은 량승태가 《통합진보당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것은 반헌법적, 반민주적범죄행위》, 《법원권청와대가 뒤꽂여 재판결정을 정치적용정이나 거액수당으로 악용》하였다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등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이들뿐이 아니다. 지난 보수집권시기 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마구 짓밟히고 통분함에 목숨까지 잃어 갔던 수많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해나가고 있다.

참으로 인간의 보통상식으로선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보수패당 당시 추악한 전진보를 다시 한번 그대로 번여주는 또 하나의 보수적패이다.

날이 갈수록 더더욱 드러나는 리명박, 박근혜역적패당의 추악한 범죄행위들에서 남조선인민들은 보수패당이야말로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가장 부패한 무리, 철저치 청산해버려야 할 쓰레기집단이라는것을 심각히 깨닫고 있다.

산해버려야 할 쓰레기집단이라는것을 심각히 깨닫고 있다.

본사기자 서 희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쟁쟁쟁

남조선에서 어느때도 그리하지 않았던 선거철만 되면 보수세력들에 의해 펼쳐지는 쟁쟁이 있다. 그 누구의 위엄에 대처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왜가리처럼 불리는 《안보》라령이 그 하나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지방자치제선거가 하루 리 돌아치는 주린 개마냥 각 지역들을 싸다니며 《주사파》가 장악한 현 당국에 의해 《안보》가 심히 파괴되고있다고 여론을 오토하고있다. 나아가 그들은 《정권심판》으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피대를 토포하고있다.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달성을 위해 계개목은 《안보》소동을 다시 피우고있는 보수패당에 대해 남북민심은 맹대를 보내고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지금 조선반도에는 장강 반세가 훨씬 넘도록 풍광 얼어붙었던 대결의 열음을 녹이며 평화의 분위기가 도배하고있다. 공화국의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에 의해 마련된 평화분위기를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가 환영하며 이것을 계속 지속시켜야 한다고 하고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공화

국의 진정한 평화호호노력에 대해 《위장평화포》라고 험뜰으며 동족대결의 랭기를 다시 불어오기 위해 필사의 몸부림을 치고있다. 그 광경이 얼마나 꼴불견인지 남조선 각계층에서 《남들은 여름옷을 입고 다니는데 (자유한국당) 만 겨울옷을 입고 다닌다.》는 아우와 비난의 목소리가 울러나오고있다.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안보론》과 《정권심판론》을 영악스럽게 짓어대는 미친개마냥 계속 떠돌고있는 여기에는 이번 지방자치제선거를 계기로 다시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어리석은 기도가 있다. 말하자면 이번 선거를 통해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를 기화로 《정권》을 탈취하여 파씨통치와 동족대결을 일삼겠다는것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속심이다.

그러나 그것은 초불바다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남남민심에게는 통할리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리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의 파씨통치하에서 진절머리나게 전쟁위험을 겪어온 남조선인민들이다.

임단 벌리면 전쟁과 동족대결을 부르짖는 《자유한국당》이 《안보론》과 《정권심판론》과

같은 다 꺾진 북풍을 두드러며 지지표를 구걸해보아야 돌아오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진제위협력은 전쟁과 대결만을 불러오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적패 세력들이다.》는 민심의 저주와 규탄받아온다.

선거철을 계기로 보수세력들에 의해 벌어지는 쟁쟁은 비단 《안보》라령놀음만이 아니다.

서로 더 많은 먹이를 삼기겠다고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개들처럼 조공이라든 권력을 더 차지해 보겠다고 서로 물고뜯는 보수세력들사이의 개싸움질 역시 이번 선거철에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쟁쟁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당권을 쥐고 안하무인격으로 늘어대는 홍준표계와 비홍준표계간의 싸움이 그칠새 없다. 얼마전에도 비홍준표계가 《끝없이 침체일로를 견고있는 당지지불과 선거전략부재의 책임》문제를 두고 홍준표의 당대표사회를 요구하자 홍준표는 그것을 개소리로 치부하며 싸움질을 벌려 사람들의 조소를 자아냈다. 사대와 동족대결, 권력에 대한 눈이 어두워 시대와 민족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세력들이 심판받을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박철우

시도를 해도 없이 꺾진 남미딱같은 《제재압박》구미미를 싸들고 열성스레 여기저기 쓰다니며 반공화국대결광중에서 미쳐돌아가는 섬나라출부들의 끔악사니는 비무늬는 동네개 합가자이다.

왜 일본은 조선반도에 감돌고있는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를 그토록 배아하며 그악스럽게 반대해나서는가.

이미 일본은 평화와 안정에로 향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여 군국주의부활과 아시아체제의 칼을 다 갈아놓았다고 할수 있다.

침략전쟁에 나설수 있는 준비를 모두 완료한 일본에 남은것은 현행헌법을 뜯어고쳐 법적명분을 마련하는것뿐이다.

이런 일본의 앞길에 화해와 평화의 새시대가 열리면 군사대국화와 아시아체제기도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게 될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그래서 조미대화가 화해에 오른 첫 시기부터 아베일방이 오만가지선경을 끈세우고 조선반도에서 저들이 바라지 않는 변화가 일어날가봐 안철부절하고있는 것이다.

달라진 현실, 변화된 흐름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제 몸상에 사로잡혀있는 일본이 세인의 조소와 경멸의 대상으로 퇴고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사악한 야마도족속들이 바늘기만 한 틈새로 세상을 보며 참세의 허바닥을 일성없이 눌러대며 불순한 목적을 달성해보려고 무진 애를 써야 더 큰 그림과 배척밖에 차레질것이 없다.

일본이 화성이나 목성이 아닌 이 지구상에 제대로 존재하기를 바라다면 모든것을 적대와 대결의 자대로 대하는 뚝뚝 악습부터 버려야 한다.

이제라도 남의 일에 쫓발나게 조를 들이밀기 전에 자기들이 무엇을 모르고있는가를 맹철하게 투시해보고 죄악으로 얼룩진 저들의 더러운 진패를 씻어 버리기 위한 용단부터 내려야 할 것이다.

현명한자는 제때에 살길을 찾는 법이다. 김연이

시도를 해도 없이 꺾진 남미딱같은 《제재압박》구미미를 싸들고 열성스레 여기저기 쓰다니며 반공화국대결광중에서 미쳐돌아가는 섬나라출부들의 끔악사니는 비무늬는 동네개 합가자이다.

왜 일본은 조선반도에 감돌고있는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를 그토록 배아하며 그악스럽게 반대해나서는가.

이미 일본은 평화와 안정에로 향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여 군국주의부활과 아시아체제의 칼을 다 갈아놓았다고 할수 있다.

침략전쟁에 나설수 있는 준비를 모두 완료한 일본에 남은것은 현행헌법을 뜯어고쳐 법적명분을 마련하는것뿐이다.

이런 일본의 앞길에 화해와 평화의 새시대가 열리면 군사대국화와 아시아체제기도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게 될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그래서 조미대화가 화해에 오른 첫 시기부터 아베일방이 오만가지선경을 끈세우고 조선반도에서 저들이 바라지 않는 변화가 일어날가봐 안철부절하고있는 것이다.

달라진 현실, 변화된 흐름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제 몸상에 사로잡혀있는 일본이 세인의 조소와 경멸의 대상으로 퇴고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사악한 야마도족속들이 바늘기만 한 틈새로 세상을 보며 참세의 허바닥을 일성없이 눌러대며 불순한 목적을 달성해보려고 무진 애를 써야 더 큰 그림과 배척밖에 차레질것이 없다.

일본이 화성이나 목성이 아닌 이 지구상에 제대로 존재하기를 바라다면 모든것을 적대와 대결의 자대로 대하는 뚝뚝 악습부터 버려야 한다.

이제라도 남의 일에 쫓발나게 조를 들이밀기 전에 자기들이 무엇을 모르고있는가를 맹철하게 투시해보고 죄악으로 얼룩진 저들의 더러운 진패를 씻어 버리기 위한 용단부터 내려야 할 것이다.

현명한자는 제때에 살길을 찾는 법이다. 김연이